

외국인 통근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별 비교 연구

류주현*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ting Regional Typ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Foreigner Commuting

Ju-Hyun Ryu*

요약 : 외국인의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입지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과 직주일치하는 경향으로 인해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직주불일치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주일치경향을 보이는 외국인 통근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근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과 직주불일치경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다. 통근일반형은 역내통근을 비중이 높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보편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용이 높은 통근유입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근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행을 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용이 낮은 통근유출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원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근거리 통행을 하고 있다.

주요어 : 외국인노동자, 통근, 직주불일치, 직장지, 거주지, 통근유입형, 통근유출형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many implications of commuting regional typ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foreigner commuting. Research on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foreigners has been very simple and limited because foreigners usually lived together in a specific area, and their workplace often tended to be their residence. However they currently live dispersed more widely, and their job and housing increasingly tend to be mismatched. This study divided areas inhabited by foreigners into general one characterized by job-housing match and exceptional one characterized by job-housing mismatch, and then examined the features of foreigner commuting.

General commute type showed a high rate of intra area commute and foreign workers' universal features. Inflow commute type showing high E/R ratio. In these areas, outflow commuters had a short journey to work while inflow commuters had relatively a long journey to work, and professionals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employees. Outflow commute type showing low E/R ratio. In these areas, outflow commuters had a long journey to work while inflow commuters had a relatively short journey to work. The composition ratio of three commute types was different according to nationality and visa type.

Key Words : foreign worker, journey-to-work, jobs-housing mismatch, workplace, residence, inflow commute type, outflow commute type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ryujh@kongju.ac.kr

1. 서론

통근자의 통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장지와 거주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된다. 그러기에 통근통행과 직주패턴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지리학을 비롯하여 경제학, 도시계획학, 사회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서울에 대부분의 기능과 각종 시설이 집중됨으로써 인구의 집중이 초래하고, 그로 인한 주택부족문제는 서울 주변지역에 끊임없이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만들고 있다.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거주지 교대화 현상의 진전 및 직주분리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직장지특성에 따른 직장지 간 공간분리와 거주지특성에 따른 거주지 간 공간분리 등 한층 세분화되고 있어 지역간 통근통행패턴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특성별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통행패턴과 지역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져왔다.

이제는 외국인 100만 시대라고 할 만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절반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합법적인 절차 말고도 불법체류 비중도 상당하지만, 이제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상당한 규모에 이른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에 그들의 통근 흐름 파악 역시 중요해졌다. 외국인의 경우, 제한된 정보와 취업기회의 집중으로 인해 내국인보다 수도권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특정 입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경향과 더불어 역내통근이 대부분인 직주일치 경향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있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직주일치 경향을 보이던 초기와 달리 점차 거주지와 직장지에 대한 유연적인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역외통근 증가로 인한 직주불일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입지나 거주지분화에 대한 연구와 취업비자 및 직장지의 선택 등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실정이지만, 점차 다양해지

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의 통근 흐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직장지와 거주지 선택에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및 지역 특성 등이 큰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리학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 연결선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이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및 지역 특성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통근패턴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주일치경향을 보이는 외국인 통근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근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과 직주불일치경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지역을 분류·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통근 유입·유출자들의 성별, 업무의 전문성, 국적, 비자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개인 측면에서는 전출통근(출근)과 전입통근(퇴근)이 동일하겠지만, 지역 측면에서는 전출통근권과 전출통근권 범위 및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로써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책적 지원 혹은 효과적인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추후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통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연구 단위지구는 그 크기를 달리 하여 지역성을 통찰하는 방법(multi-scale)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스케일로 지역을 보는데 이 때 너무 작거나 크면 지역구조를 명확하게 볼 수 없다(손승호, 2003).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정도의 단위(meso-scale)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도 서울특별시 25개 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경기도 31개 시·군, 총 66개 시·군·구로 연구범위 및 연구단위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2005 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10% 표본)' 자료와 2007년 말 기준 법무부 등록외국인 자료 중 수도권에 거주하며 수도권에 직장인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215,808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spss 14.0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로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분석을 한다.

2. 통근의 개념 및 연구 동향

통근이란 가정과 직장, 즉 거주지와 직장지를 오고 가는 일상적인 통행을 의미한다(Johnston, 1988). 통근 통행은 교통의 수급문제, 도시 공간구조 변화, 도시의 성쇠 등에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게 된다. 그 동안 통근 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는 고용자 수, 고용밀도, 사무실면적, 지가, 상업집중지수 등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지표 크기에 의해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는 있으나 지역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이종성, 2008). 이에 지역간의 연결체계, 유통패턴 등을 중심으로 연계성 연구로 네트워크 분석, 연결구조 분석(손승호, 2004) 등이 이용되었으며, 연결중심성을 살펴보고자 주로 지역별 흡수통행량을 분석(이희연·김홍주, 2006)하여 연결성과 중심성이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지역 간 연계 분석 또는 도시의 세력권분석에는 자체통근통행, 즉 역내통근을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동안 통근통행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크게 통행 발생지와 통행흡수지로 구분하여 지역 간 연결체계 혹은 지역 내 인구·사회·경제학적 속성에 따른 통행의 특성 및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통근을 거주지와 직장지를 오고 가는 통행을 모두 총칭하여 정의하지만, 실제 연구 대부분에서는 통근을 거주지에서 직장지로 이동하는 통근에 제한하여 통행발생지를 거주지, 통행흡수지를 직장지로 간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통근자의 특성이 통근지역의 특성을 만드는 동시에, 통근지역의 특성에 의해 유입되는 통근자의 특성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는 통근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먼저 통근지역 관점은 총체적인(aggregated) 통근자를 유입·유출되는 정도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반면 통근자 관점은 개별적인(disaggregated) 통근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통근패턴을 보이며 어느 지역과 연계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밖에도 통근의 이동방향에 따라 거주지에서 직장지로 향하는 진출통근통행과 직장지에서 거주지로 돌

아오는 전입통근통행으로 구분하거나, 시외에서 시내로의 구심점 통근과 시내에서 시외로의 원심적 통근, 그리고 시외 간 수평적 통근 등으로 구분하거나, 출발지와 목적지의 지역 속성(예: 중심부 또는 주변부)에 따른 구분이나, 통근 경계를 구분하는 지역스케일에 따른 구분하는 등 다양한 분류 기준만큼이나 개별 연구마다 통근의 개념정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국내 통근연구는 주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통근권을 밝히고, 통근자의 특성을 분류·분석하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찰하여 왔으며, 이러한 통행패턴 분석을 통해 대도시권을 설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노선을 결정하여 교통난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직주분리에 관한 연구, 성별·직업·학력·소득 등 통근자 특성에 관한 연구 및 역통근에 관련한 연구 등을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환영·백종렬(1999)은 우리나라 5대 대도시와 2개 지방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전입통근권과 진출통근권을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광철홍·이전(1997)은 지방중심도시 진주에서 주변 배후지로 역통근하는 통근형태를 중점 연구하였다.

점차 여성의 통근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수단 선택 및 통행시간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중 통근·통학 통행실태가 조사된 1980년, 1995년, 2000년을 바탕으로 한 통근통행의 연구(김강수·정경옥, 2004)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 남자의 1인당 통근통행량은 1980년에 비해 남자의 경우 40.28%증가했고, 여자의 경우는 123.1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숫자만 다를 뿐이고 대체로 광주권, 대전권, 부산권, 대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상(2008)은 통근통행 O-D행렬자료를 이용한 지역의 연계성과 중심성을 기초로 수도권 공간구조를 살펴 본 결과, 2005년 수도권의 도심은 중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권과 강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다 세분화하면 강북권은 중로구권과 중구권, 강남권은 강남구권과 영등포구권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표 1. 통근 관련 용어들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사례

용어		개념 정의
통근		- 거주지(통근유출지)와 직장지(통근유입지) 간의 통행을 총칭 - 거주지(출발지, 발생지)에서 직장지(도착지, 흡수지)로 이동하는 통행* - 역내통근을 제외하고, 역외 직장지로 이동하는 통행 ※ 역통근은 시내(중심부) 거주지에서 시외(주변부) 직장지로 이동하는 원심적 통근
통근권		- 전출(유출, 배출, 출발)통근권, 거주지 기준으로 통근(출근)하는 범위 - 전입(유입, 흡수, 도착)통근권, 직장지 기준으로 통근(퇴근)하는 범위
통근 중심성	고용밀도	- 단위면적당 고용자수 ※ 중심지고용밀도는 대도시권의 평균 또는 대도시권 평균의 2배
	고용(비)율	- 거주자에 대한 고용비율(E/R ratio) - 주간인구/야간인구 또는 직장인구/거주인구 - 고용잉여지역과 고용부족지역을 구분하여 순유입통근으로 인한 고용집중을 강조할 때 제시 ※ 거주인구는 일반적으로 야간인구와 동일하게 측정하나, 때로는 통근을 하는 거주인구에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유사 개념으로 그 지역에 사는 거주자와 그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구분한 직주 비율지표가 있음
세력권		- 중심부에서 주변부로의 (역)통근 비율에 근거하여 도시세력권 구분
통근수지		- 유입(전입)에서 유출(전출)인구를 뺀 후 총인구로 나눔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의

직주불일치에 따라 통근거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통근거리 혹은 직주거리는 성별, 직종이나 산업별, 전문화정도, 직급 등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직주거리의 성별 차이는 노동시장 지위 및 사회계층상 차이의 반영된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계층적 지위-임금율의 격차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직주거리는 직종이나 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성이 사무직과 서비스직 같은 여성-지배적 직종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단거리통근과 직결하게 되는 것이나(Rose and Villeneuve, 1988),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기에 통근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통근거리가 짧다고 보았다(White, 1977). 진중현(1994) 역시 상위직에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시간과 거리는 짧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주간 거리가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승(1998)은 구조적인 요인 외에 통근자 개인의 특성인 자가소유, 고학력, 고소득, 행정·관리·전문직 종사자 등이 원거리 통근을 한다고 보았으며, 김순화(2004)는 연령이 낮

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자가 소유자 일수록, 직업과 산업이 행정, 관리, 제조업종사자 중의 전문가, 제조업종사자 중의 기술직, 제조업종사자 중의 사무직 일수록 통근 시간이 길다고 보았다.

외국인 대상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세계화 관점에서의 국가적 스케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전문화 정도에 따라 노동자특성을 구분하여 연구하거나 특정 거주지에 한정하여 거주지분리가 나타난 사례 연구(이태정, 2004; 최재현·강민조, 2003), 외국인 노동자 조직의 형성과 활동에 관한 연구(변현진, 2004; 이용균, 2007), 여성 외국인 노동자 경우처럼 대상을 제한한 이금연(2001) 등 연구 대상 및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대상 연구는 국가적 스케일의 집단연구 경향에서 점차 하위지역 스케일의 개별연구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장 내적 요인뿐 아니라 직장 외적 요인으로 그 연구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거주지분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오래 되었으나 초기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지는 대부분 직장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거주지 선택 변수도 다양해짐에 따라 드러난 직주불일치 경향이 증가됨에 따라, 직주 관계를 고려한 유형 분류를 한 후에 각 유형별로 통근 유입·유출자들의 성별, 업무의 전문화수준, 국적, 비자 특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수도권 외국인노동자의 통근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2007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066,273명이지만 장기체류에 해당되는 등록외국인의 경우는 765,746명이고, 이 중 수도권에 66.5%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시 수도권에 직장과 거주지가 모두 있는 등록 외국인 노동자, 215,808명으로 한정하여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공업지역이며, 남성 및 단순직 종사 비율이 평균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에서 평균이상의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29개국에서 입국했으며, 한국계 중국인이 34.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필리핀 10.0%, 베트남 10.0%, 타이 8.8%, 중국 8.1%, 몽골 4.6%, 인도네시아 4.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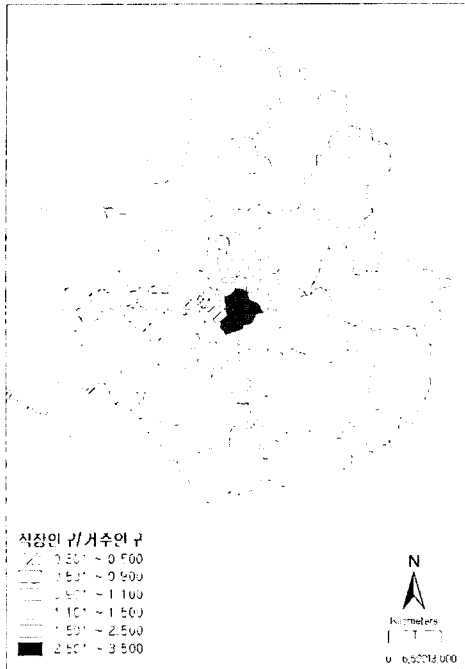
국적별로 세부비자자격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전문직에 해당되는 교수(E-1), 회화지도(E-2), 기술지도(E-4)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았고, 연구(E-3)의 경우 중국, 인도, 일본 순이며, 주재(D-7), 기업투자(D-8)는 일본이 가장 많으며, 예술홍행(E-6)의 경우 필리핀,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직에 해당되는 비

전문취업(E-9)의 경우 베트남이 17,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16,802명, 타이 16,741명, 중국 9,897명, 한국계 중국인 9,462명, 몽골 8,880명, 인도네시아 7,558명, 스리랑카 5,023명, 방글라데시 3,320명, 파키스탄 2,137명, 우즈베키스탄 1,8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수취업(E-8)의 경우는 베트남, 선원취업(E-10)의 경우는 중국, 관광취업(H-1)의 경우는 일본, 산업연수(D-3)의 경우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방문취업(H-2)의 경우는 한국계 중국인이 60,849명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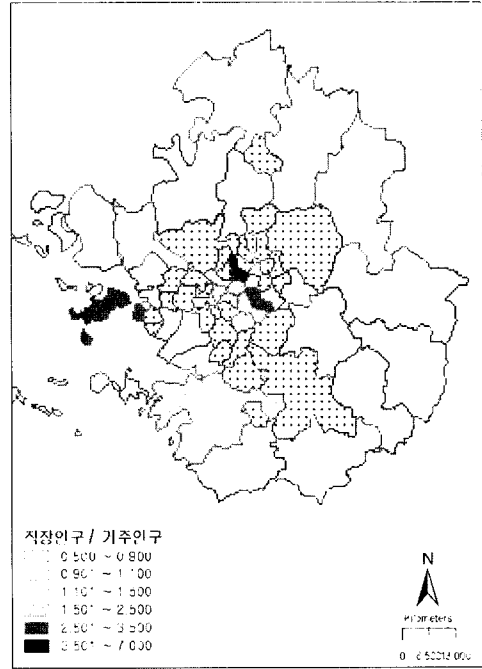
2) 외국인노동자의 통근

「2005 인구센서스」 ‘통근·통학(10% 표본)’의 국내 통근자와 비교하면, 외국인 통근자의 직주거리는 국내 통근자 7.38km보다 짧은 5.43km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통근자의 역내통근율은 국내 통근자 46.1%보다 높은 70.8%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통근자와 외국인통근자 간의 평균직주거리 및 역내통근율 차이가 예상외로 적게 나타난 이유는 34%에 달하는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국적의 조선족 때문이다.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통근자의 경우 직주거리 2.56km, 역내통근율 86.8%을 나타나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지와 거주지 상관관계는 0.914로 0.01수준(양측)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노동자의 경우 0.01수준(양측)에서 0.609로 나타나 직장지와 거주지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일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직주일치 성향과 몇몇 특정 입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경향이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인구와 거주인구 간 비율을 통해 국내 통근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첫째 외국인의 경우 고용균형상태라 할 수 있는 고용비율 0.9~1.1에 해당되는 지역이 비교적 넓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통근자의 해당 지역은 66개 단위 지역 중 17개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34개 지역이 해당된다. 둘째 외국인 고용비율의 지역차가 완만한 편이다. 즉 국내 통근자는 0.51~6.77 사이에 분



(가) 외국인 통근자



(나) 국내 통근자

그림 1. 외국인 통근자와 국내 통근자의 지역별 고용비율

포하지만, 외국인은 0.34~3.13으로 최소·최대값 차이가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소값이 더 낮고 국내 통근자의 최대값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최대 고용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서초, 강남, 과천이 해당되지만, 국내 통근자의 경우 이 지역 외에도 중구, 종로구가 있다. 더욱이 중구, 종로구에서 최대 고용비율이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별 고용비율 분포는 국내 통근자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역외로 통근 유출인구와 통근 유입인구 규모가 커더라도 그 수치가 유사하다면 고용비율(E/R ratio) 1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고용비율을 역내통근율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역내통근율이 높은 지역은 고용비율이 1에 가까워지고 직주일치 경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역내통근율이 높은 지역, 즉 역외로 통근 유출·유입량 자체가 미비하여 고용비율 1에 근접하여 나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통근율이 낮은 지역 중에서 고용비율도 낮은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지만, 일부 고용비율은 높은 지역은 역외로 유출되는 통근자들도 있지만 역외에서 더 많이 유입되는 통근자들로 인해 고용 중심성은 유지하는 지역이 된다.

지역별 거주인구와 직장인구는 결국 통근유출인구와 통근유입인구가 된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그림 2)와 국내 노동자(그림 3)으로 살펴보면 통근 지역별 차이를 알 수 있다. 국내노동자의 경우 통근중심성을 나타내는 일부 지역(통근유입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형으로 추세선에 근접 분포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통근유입형외에도 통근유출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대다수는 통근 유출·유입 규모가 유사하고 역내통근율이 높아 직주일치 성향을 나타내는 통근일반형이었다. 특정지역에서 직주일치 경향을 보이던 초기와 달리 점차 외국인 노동자들도 거주지와 직장지에 대한 유연적인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역외통근 증가하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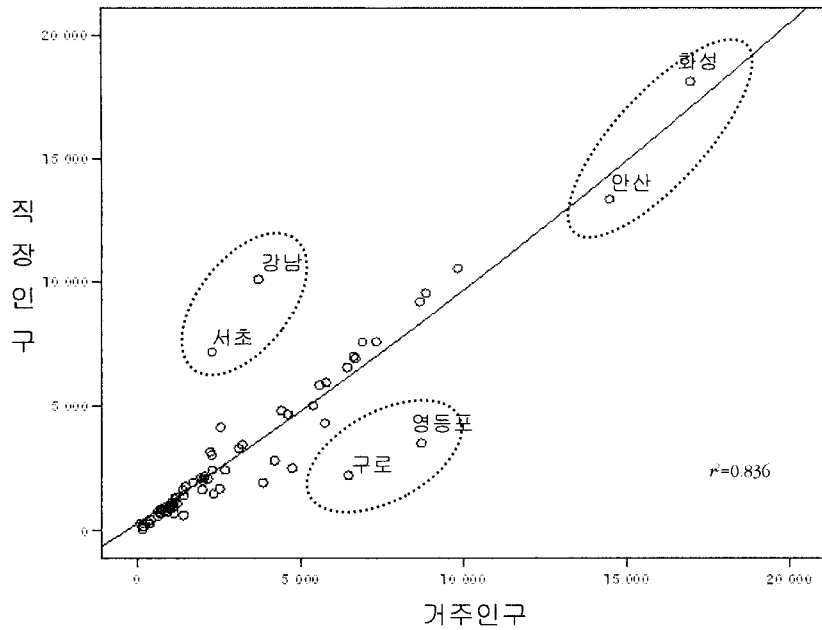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노동자의 거주인구와 직장인구(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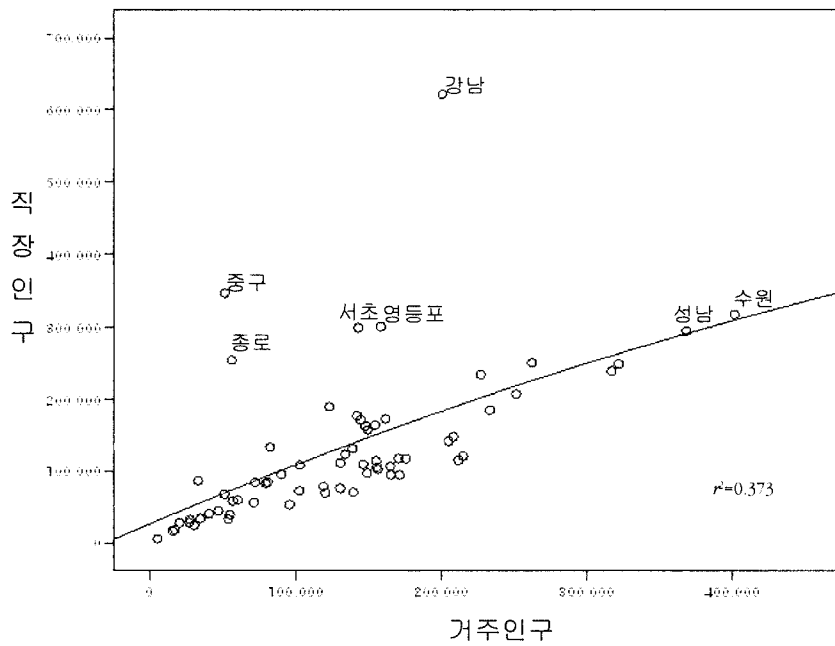


그림 3. 국내노동자의 거주인구와 직장인구(2005)

부 지역에서 직주불일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지역이 바로 통근유입형에 해당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통근유출형에 해당되는 구로구와 영등포구이다.

또한 통근중심성이 나타나는 통근유입형이 그림 2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만이 해당되지만, 그림 3에서는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더 포함되어 있어 도심-부도심 공간구조도 엇볼 수 있었다. 그림 2에서만 나타나는 통근유출형은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해당되는데, 그림 2와 3에서 영등포구의 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지역 연결체계

대다수 지역이 직주일치 성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직주 불일치가 나타나는 지역의 연계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거주인구보다 직장인구가 월등히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통근 유출·입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와 그림 5이다. 강남구

의 경우 수도권 각 지역과의 유출·입 표준편차가 3이상 나타나는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와 표준편차 2~3인 용산구, 광진구에서 주로 유입되어 강남구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반면, -1 이하를 나타내는 강남구,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도봉구, 인천 동구, 인천 남구, 강화군, 김포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오산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이 비교적 강남구와의 연계성이 낮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표준편차 2이상 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서 통근 유입량이 많아 유입 연계성이 높으며, 표준편차 -1 이하인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인천 부평구, 인천 동구,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강화군과는 비교적 서초구와의 연계성이 낮게 나타나며 서초구 거주자들이 유출되는 지역에 해당된다.

외국인 노동자 직장인구보다 거주인구가 월등히 많은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통근 유출·입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타낸 것이 그림 6과 그림 7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표준편차 2이상 나타나는 지역이 없으며,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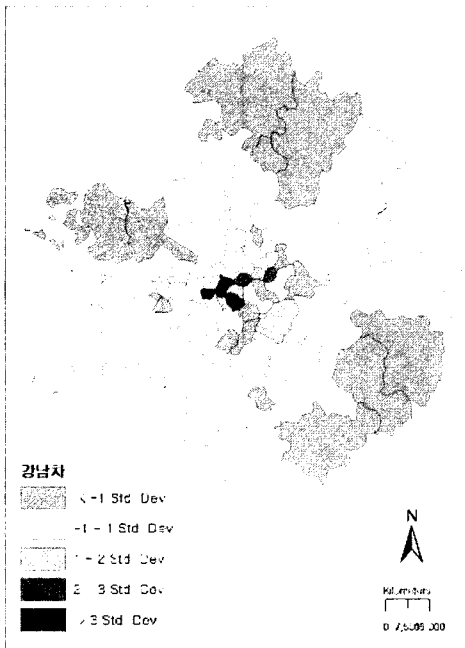


그림 4. 강남구의 통근 유출·입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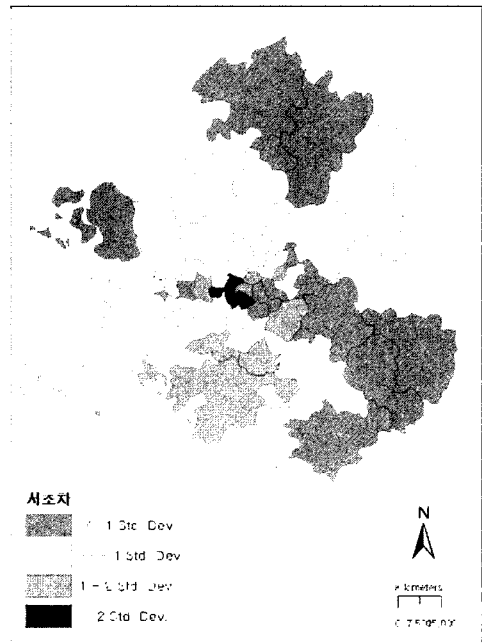


그림 5. 서초구의 통근 유출·입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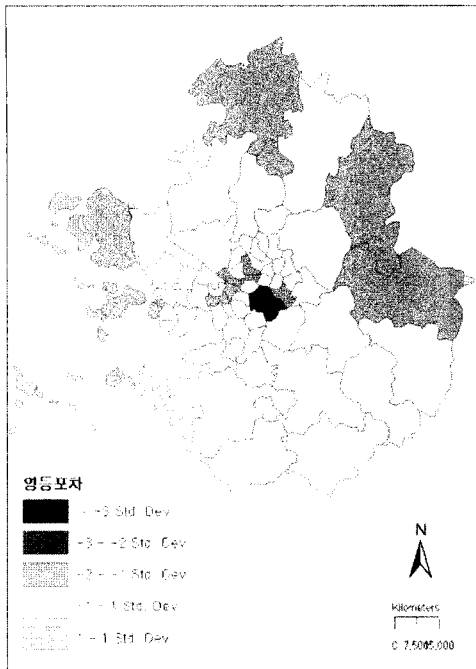


그림 6. 영등포구의 통근 유출·입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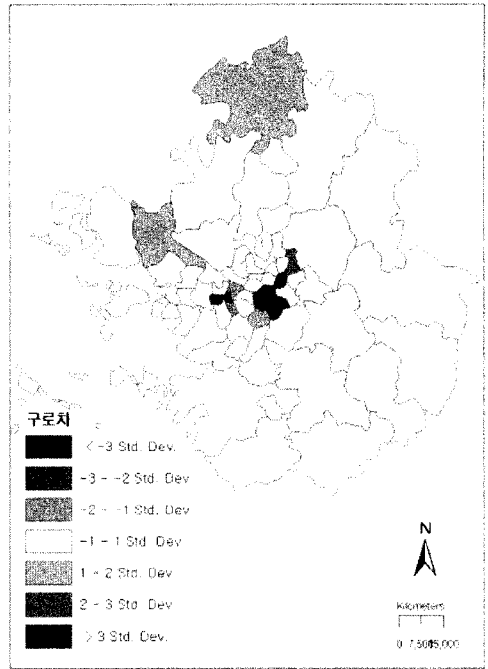


그림 7. 구로구의 통근 유출·입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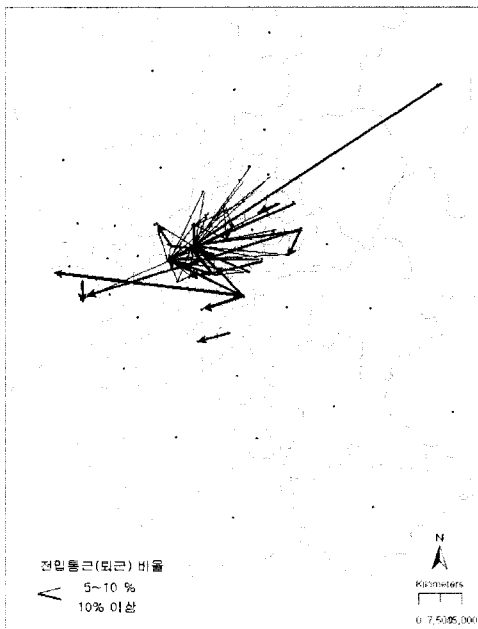


그림 8. 전입통근 연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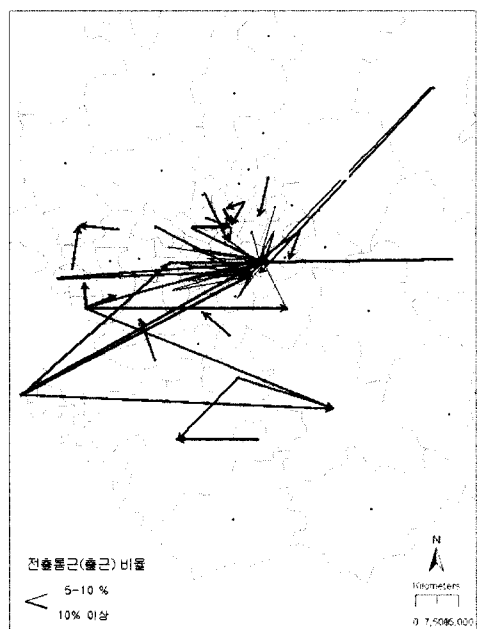


그림 9. 전출통근 연결체계

1~2 사이인 용진군, 강화군, 인천 중구와 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와 지역적 연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3 이하인 서초구와 강남구가 두드러졌으며, 마포구, 인천 중구, 종로구, 송파구도 낮게 나타났다.

구로구의 경우 3이상 나타나 광진구, 2~3 사이에 해당되는 구리시, 1~2 사이에 해당되는 과천시, 김포시, 연천군과의 유입 연계성이 높은 반면 -3 이하인 영등포구와 금천구, -3~-2에 해당되는 서초구, -1~-2에 해당되는 구로구와 강남구와는 유입 연계성은 낮게 나타나 이들 지역으로 구로구의 거주자들이 주로 유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직장지를 기준으로 각 단위지역 간 통근율이 5~10%, 10% 이상 차지하는 지역들을 추출하여 연결하면 그림 8과 같다. 이때 영등포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등이 여러 지역과의 연결되어 통근 연결체계 속에서 노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림 9와 같은데, 그림 8에 비해 강남구와 서초구가 더 많은 지역과 높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직장지 기준의 전입통근 연결체계보다 거주지 기준의 전출통근 연결체계의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로구와 중구 지역이 별도의 전출통근 연결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근의 관점을 개개인으로 보는 것과 달리 전출지와 전입지라는 지역관점 차이에서 보면 전입통근 연결체계와 전출통근 연결체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4. 외국인노동자의 통근유형별 특징

거주인구와 직장인구의 상관관계에 의해 대다수가 포함되는 보편적인 통근일반형과 더불어 일부 지역이지만 직주불일치 성향이 나타나는 통근유입형과 통근유출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속성을 비교해본다.

1) 통근일반형

그림 2에서 나타났듯이 통근일반형에는 고용비용이 균형에 가까우며 직주일치 성향이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는 62개 지역을 평균해서 일반화시켜야 하겠지만, 거주인구, 직장인구의 규모가 가장 큰 화성시와 안산시가 통근일반형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므로 표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인 근거리 통근통행, 높은 역내통근율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12.1%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내 극히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통근일반형 대부분은 전문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간 통근 유출·입 규모(그림 10)를 살펴보면, 역내통근율이 높기 때문에 순유입 규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순통근유입량이 (+)로 나타는 지역 가

표 2. 유형별 통근 특성

유형		직주거리(km)	역내통근율	여성(%)	남성(%)	단순직(%)	전문직(%)
통근유입형 (강남·서초)	전출통근	3.88	79.2	46.1	53.9	49.7	50.3
	전입통근	11.87	27.5	45.5	54.5	77.7	22.3
통근유출형 (영등포·구로)	전출통근	13.06	22.0	43.7	56.3	94.1	5.9
	전입통근	5.83	58.7	42.3	57.7	81.4	18.6
통근일반형 (화성·안산)	전출통근	3.18	88.0	20.1	79.9	98.1	1.9
	전입통근	3.25	87.9	20.3	79.7	97.3	2.3
외국인노동자 전체		5.43	70.8	28.3	71.7	87.9	12.1

자료: 법무부, 2007, 등록외국인DB

운데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있는데 이들 지역으로부터는 통근유입량이 더 많지만, 순통근유입량이 (-)로 나타나 통근유출량이 더 많은 지역으로는 서초구, 시흥시, 강남구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구성(그림 11)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 평균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전입통근, 전출통근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전입통근과 전출통근자의 국적 구성이 거의 일치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종의 전문화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는 비자자격 구성(그림 12)에서도 나타난다. 단순직 종사자의 대표적인 제조업 비자와 연수취업 비자가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 화성시와 안산시가 제조업 위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통근유입형

통근유입형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비율 범위(0.34~3.13)가 국내노동자 경우에 비해 좁은 범위이지만,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강남·서초구를 거주지로 하는 통근자가 근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강남·서초구를 직장지로 하여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행을 하고 있다.

역내통근율을 살펴보면, 통근유입형은 역외지역으로 전입통근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통근유출형은 역외지역으로 전출통근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내통근율이 낮으면, 즉 역외통근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직주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 간 비율을 보면, 통근유입형과 통근유출형 모두 일반형과는 달리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통근유입형의 전입통근, 전출통근 모두 전문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거주지 기준인 통근에서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50.3%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 노동자가 용산구, 강남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은 50% 이상이 전문직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노원구, 과천시, 중구, 인천중구, 서초구 순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40% 이상 거주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들의 전체 비율은 적을 지라도 일부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기 때문

이다(류주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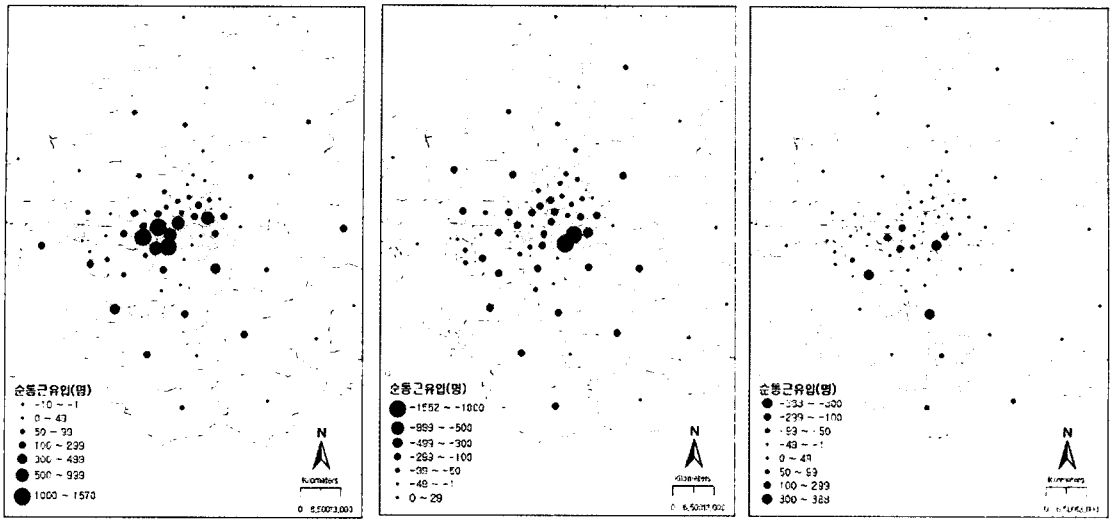
지역 간 통근 유출·입 규모(그림 10)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순통근 유입량이 (+)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구성(그림 11)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 평균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전입통근, 전출통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전입통근자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은 60% 이상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밖에도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통근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의 전문화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는 비자자격 구성(그림 12)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보니 방문취업 비자의 구성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방문취업의 비중은 이 지역을 직장지로 하는 전입통근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근유출형의 방문취업 비자 구성비가 전출통근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적 상 선진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지어 전문직 직종의 의미하는 특정 활동, 기업투자, 회화지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 통근유출형

통근유출형은 고용비율이 낮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는 국내노동자 기준으로는 1.90으로 통근유입형에 속했으나, 외국인노동자 기준으로는 0.40으로 전형적인 통근유출형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로구를 거주지로 하는 통근자가 원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영등포·구로구를 직장지로 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단거리 통행을 한다. 통근일반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높지만, 전문직의 비율은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간 통근 유출·입 규모(그림 10)를 살펴보면, 통근유출형과 마찬가지로 역내통근율이 낮지만 통근유출형과는 달리 거의 전 지역으로 통근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로의 통근 유출이 두드러진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구성(그림 11)에서는 통근유출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 전체 평균에 비해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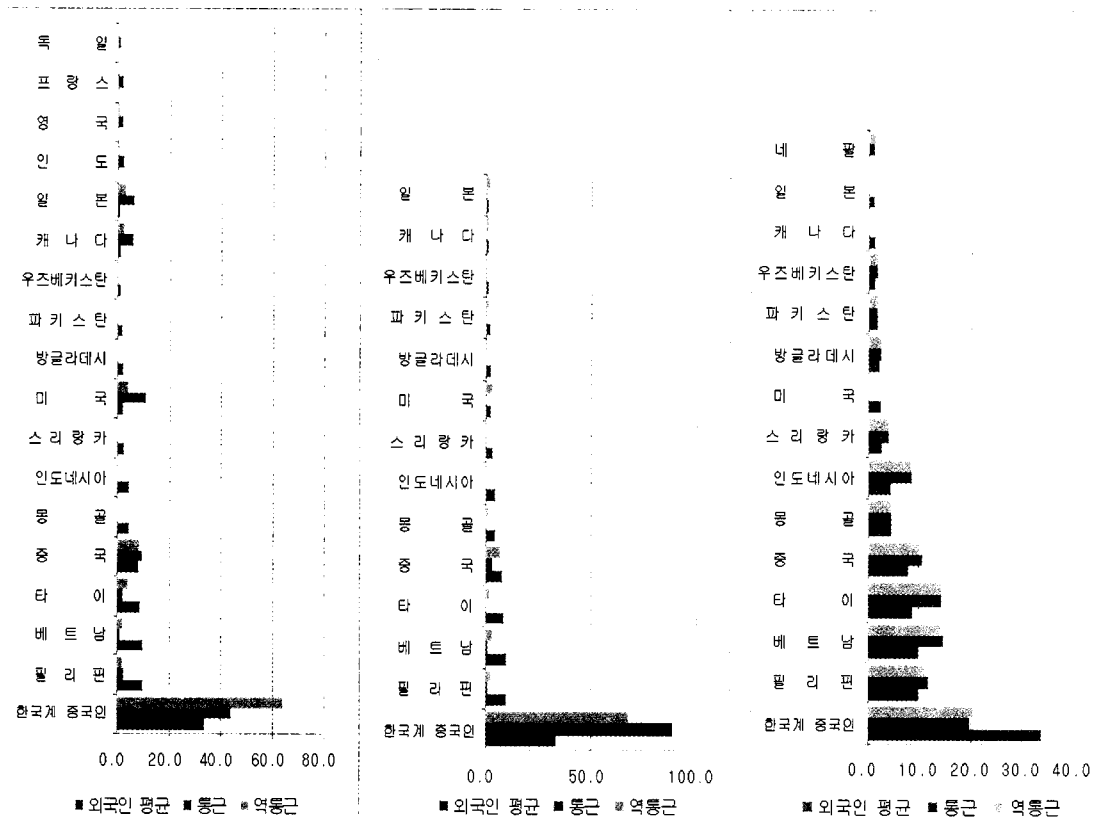


(가) 통근유입형

(나) 통근유출형

(다) 통근일반형

그림 10. 유형별 지역 간 통근 유출·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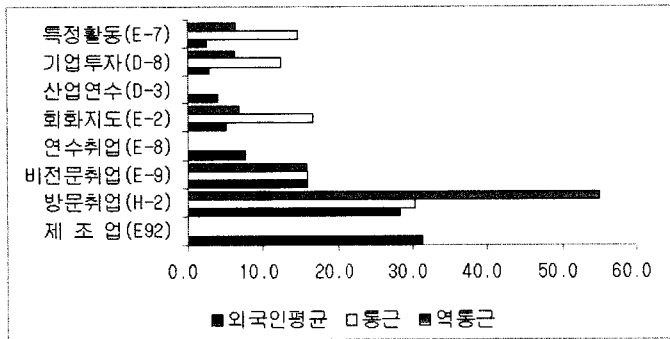


(가) 통근유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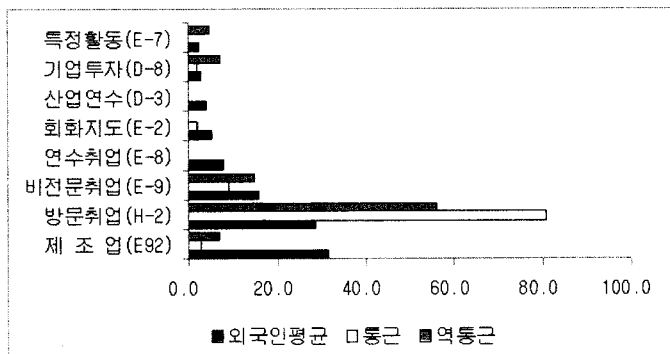
(나) 통근유출형

(다) 통근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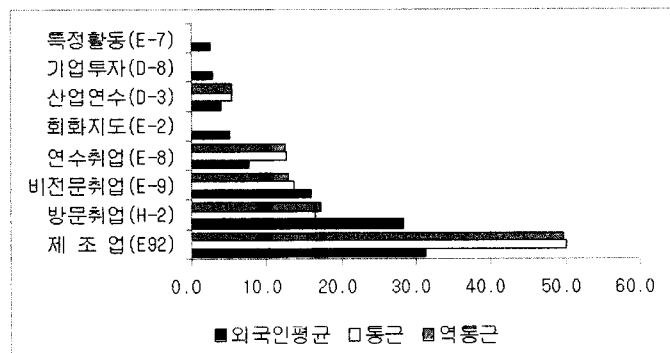
그림 11. 유형별 국적 구성



(가) 통근유입형



(나) 통근유출형



(다) 통근일반형

그림 12. 유형별 주요 비자자격 구성

국제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불일치가 나타나는 배경이 한국계 중국인의 통근 행태로 인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종의 전문화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는 비자자격 구성(그림 12)에서 방문취업 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거주지로 하여 통근할 때 그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요약

이미 상당한 규모가 분포하는 외국인노동자 집단 거주지역에서는 그들 간 상호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의 통근은 역내통근이 대부분인 직주일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거주지 연구만으로도 충분했으며, 그들의 통근통행연구 역시 학문적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거주지와 직장지에 대한 유연적인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역외통근 증가로 인한 직주불일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3개 통근유형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통근유입·통근유출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직장지와 거주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직주일치형이다.
2. 직장지와 거주지 관계를 유형화하면, 대다수가 포함되는 통근일반형, 직주불일치를 보이는 통근유입형과 통근유출형으로 구분된다.
3. 통근유입형은 근거리 전출통근통행을 하는 반면 원거리 전입통근통행을 하고 있고, 통근유출형은 그와 반대로 나타난다.
4. 통근유입형은 역외지역으로 전입통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통근유출형은 역외지역으로 전출통근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5. 통근유입형과 통근유출형 모두 일반형과는 달리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통근유입형의 전출통근, 전출통근 모두 전문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전출통근에서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전문직 종사자 집중 거주지라 할 수 있다.
7. 통근유입형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통근자 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지어 전문직 직종의 의미하는 특정 활동, 기업투자, 회화지도 비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8. 통근유입형과 통근유출형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전체 평균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나타난다. 이는 직주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이 한국계 중국인의 통근통행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9. 통근유입형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전출통근자에 비해 전입통근자에서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통근유출형에서는 전출통근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직주일치경향을 보이는 외국인 통근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근 특성을 나타내는 통근일반형과 직주불일치경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지역인 통근유입형과 통근유출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통근유입·유출자들의 성별, 업무의 전문성, 국적, 비자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예외적인 지역이라고 단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지역을 개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통근흐름 규모가 상당히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 통근의 경향을 충분히 논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후 노동자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게 되면 더욱 세분화된 통근 유형분류 분석이 계속 요구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미흡하여 단순한 결과 해석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통근통행과 연관된 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보다 일반화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주

- 1) 2007년 말 기준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48.5%보다 더 많은 64.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2)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거주인구'는 외국인 총 거주인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 제한된 거주인구를 의미한다.
- 3) 일반적인 거주자 분석은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적 특성, 인종적 특성의 3가지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근관련 문헌에서도 이들 3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직업, 가족적 특성에서는 연령별·성별 등이 강조된다.
- 4) Plane(1981)은 통근유형을 ① 중심도시 내부에서의 통근 ②

- 중심도시로의 통근 ③ 역통근 ④ 수평적 통근 ⑤ 교차통근, 5가지로 구분하였다.
- 5) 이때의 역통근(reverse commuting)은 고용의 교외화가 나타나지만 근로자 상당수가 도시 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변지역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현상을 말한다.
- 6) 예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로 영등포구와 구로구, 직장지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역시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는 직주 불일치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7) 통근을 하는 거주인구
- 8) 구로구가 고용비율이 가장 낮을 뿐 더러 역내통근율도 가장 낮은 17%로 나타나 전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춘령, 2008,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가구 특성 및 통근통행 형태 변화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철홍 · 이진, 1997,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3-34.
- 김강수 · 정경욱, 2004,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도시 통근 · 통학 특성분석, 교통개발연구원.
- 김순화, 2004, 우리나라 도시 거주자의 통근형태 변화 결정 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 류주현, 2008,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의 공간적 특성 및 스케일 소외지역,”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자료집, 160-162.
- 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77-90.
- 박배균, 2003,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3-176.
- 변현진, 2004, 이주노동자 조직의 형성과 활동,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 손승호, 2003, “수도권의 통근통학통행과 지역구조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69-83.
- 손승호, 2004, “서울시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의 구조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8(4), 562-584.
-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19-30.
- 양정운, 2008, 외국인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 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이변송, 1998, 서울 거주자의 통근거리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33(3), 241-263.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종상, 2008,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수도권 공간구조와 그 변화: 1995-2005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91-100.
- 이희연 · 김홍주, 2006,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변화, 1980-2000년,” 국토계획, 41(1), 91-111.
- 이태정, 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정환영 · 백종렬, 1999, 우리나라의 통근 · 통학권 설정, 지역개발연구논총, 7(1), 97-118.
- 진종현, 1994,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24(1), 175-196.
- 최재현 · 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17-30.
- 허우궁, 1991, “서울의 통근과 주거지 선택,” 지리학, 26(1), 46-61.
- Clark, W. A. V. and Huang, Y., 2004, Black and white commuting behavior in a large southern city: evidence from Atlanta, *Geographical Analysis*, 36(1), 54-68.
- Johnston, I., 1988, The journey to work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Urban Geography*, 9(2), 138-154.
- Madden, J. F., 1981, Why women work closer to home, *Urban Studies*, 18, 181-194.
- Plane, D. A., 1981, The geography of urban commuting fields: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New England, *Professional Geographer*, 33(2), 183-188.
- Rose, D. and Villeneuve, P., 1988, Gender and the separation of employment from home in metropolitan Montreal, 1971-1981, *Urban*

류주현

Geography, 9(2), 155-79.

White, M. J., 1977, A model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and commuting by men and women worker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7, 41-51.

<http://www.immigration.go.kr/>

<http://www.nso.go.kr/>

교신: 류주현,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ryujh@kongju.ac.kr, 전
화: 041-850-8242)

Correspondence: Ju Hyun Ryu,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182, Shinkwan-dong, Gongju, Chungnam,
314-701, Korea (e-mail: ryujh@kongju.ac.kr, phone:
+82-41-850-8242)

최초투고일 09. 05. 22

수정일 09. 06. 12

최종접수일 09. 06. 15